

“9월께 무역흑자… 반도체 외 주력산업 대부분 회복 예상”

정유·석유화학·전자 분야 기대
자동차 수출, 하반기 속도 둔화
美서 전기차 등 사상 최대 호황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일 서울 성수동 로봇카페 북북에서 열린 ‘로봇공감 토크콘서트 로.그.인(로봇 그리고 인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늦어도 오는 9월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반도체를 뺀 대부분의 산업이 회복세라는 진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늦어도 오는 9월께 월간(무역)흑자가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회복은 좀 더 늦겠지만 조선과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 대부분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무역적자는 올해 월별 계속 그 규모가 줄고 있다”며 “8-9월에는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에는 확실히 흑자가 되면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것 같다”고 했다.

장 차관은 무역흑자 전망 근거에 대한 질문에 “반도체 전망 평가가 조금 안 좋게 나와, 그런 부분을 반영해 흑자 전환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대부분 품목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배터리와 태양광 분야에서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뒤 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적지만, 방산 부분

도 최근에 일부 기업에서는 500명씩 채용할 정도”라며 “유가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 전자 분야도 회복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자동차 수출에 대해 장 차관은 “상반기에 교체 수요가 이미 많이 (충족)돼서 하반기에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며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충분히 재고가 나갔고, 코로나19 이후 교체 수요도 상반기쯤 일단락되며 하반기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차관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를 이전보다 저조하게 전망하고 있다

고 언급했지만 산업연구원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를 들면서 “4-5월 전망치 모두 두 달 연속 플러스가 나왔다”며 “점차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이와 함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반도체법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보면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리스크로 제기되던 것 중 가령 반도체 업계 등에서 기술 업그레이드 등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은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용차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며 “여러 제도를 활용해 전반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 중요 쟁점에 대해 산업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협, 전통 손모내기 재현 행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 앞 야외농장에서 서울 미동초 어린이들과 전통 손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농협

에스토니아·핀란드 등에 경제사절단 파견

정대진 통상차관보 단장으로 구성
국가별 경제협력 확대 방안 모색

정부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오, 원전 등의 신산업협력, 통상현안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사절단에는 정대진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코트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SK, 한국수력원자력,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 등이 참여한다.

경제사절단은 22일 에스토니아산드라 사라브 경제통상부 차관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23일 리투아니아 톨란 다스크리스크키우나스 총리실 선임부실장, 카롤리스 제마이티스 경제혁신부 차관, 에기디우스 메이루나스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25일엔 핀란드 페트리 펠토넨 경제고용부 차관보, 26일 핀

란드 니나 바스쿠라히티 외교부 차관보와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정 통상차관보는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하면서 ▲교역·투자 확대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산업협력 ▲유럽연합(EU) 통상현안 협력 ▲디지털·첨단기술 협력 등을 논의해 국가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제사절단은 또 에스토니아, 핀란드 양국에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코트라-에스토니아 기업청간 투자진출 협력 양자협약(MOU)을 체결해 양국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평가를 위한 KCL 핀란드 지사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으로, 향후 현지에서 국내 완성차, 이차전지 업체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시험평가분야에서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말레이서 4243만 달러 상담 성과

‘FIM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IM 2023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총 241회 상담, 4243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FIM(Franchise International Malaysia)은 올해 30회를 맞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9개국 79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전 세계 1만 5000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했다.

공사가 운영한 한국관에는 국내 우수 외식 프랜차이즈 8개사가 참가했다



지난 18-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IM 2023 국제프랜차이즈 박람회의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들이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aT

며, 떡볶이, 고추장 치킨 등 특색 있는 외식 메뉴들을 선보이며 K-외식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공사 쿠알라룸푸르 지사에서는 박람회 전에 현지 유력 바이어를 다수 발굴해 우리 외식기업들과 연결해

줬다. 박람회 후에는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 자문과 식재료 통관 등 사후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참가 외식기업 J사는 “한국관에 현지 바이어들과 소비자들이 몰려와 K-외식 프랜차이즈의 인기를 실감했다”라며, “특히 공사에서 사전 발굴해준 바이어 상담 결과가 좋아서 현지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올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K-푸드와 K-컬처 열풍을 활용해 우리 외식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농관원, 화훼 판매업소 78곳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절화류 위주 단속… 전년비 25.8% ↑
4곳 형사입건·74곳 과태료 448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 꽃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5월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4개소) 하거나 미표시(74개소)한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튜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상근 기자

나라바이오, ‘삼진 아웃제’로 판매가 강제

판매지시가격 미이행 사업자 적발 시
경고·물량조절 → 단가 ↑ → 거래 중단
공정위, 재판매가가격유지행위 시정명령

친환경농자재 제조사인 나라바이오가 총판과 대리점 등에 판매가격을 강제하다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나라바이오는 판매가 강제를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나라바이오가 자사의 친환경 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 및 지점 판매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연말까지 2개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며 계약서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과 총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전국 농약사 등 대리점들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과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나라바이오는 계약서에 자신의 판매지시가격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또 판매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2022년부터는 기존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며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고, 그 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를 조사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삼진아웃제를 통해 1차 적발시 경고와 물량조절, 2차 적발시엔 출고 단가 인상, 3차 적발시 거래중단을 예고하고, 일부 판매점의 판매가격을 적발해 경고와 제재를 통지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